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군선교는 민족복음화의 불씨!

복음전도에 있어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군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비전2020운동과 민족복음화

‘비전 2020운동’이란 2020년까지 모든 군인이 복음을 듣게 하자는 운동이다. 진중세례식을 통해 군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변화된 그들이 가정을 복음화하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군선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인민군 100만 장병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통계상 매년 22만 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아 변화되면 2020년에 이르러서는 3700만 명(인구의 약75%)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교회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1993년 이후 해마다 진중세례식을 주관하고 있다.

▷28일(토) 육사세례식 집계

올해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서울교회 주관으로 3월 28일(토) 오후 2시 사관학교내 육사교회에서 거행된다.

이번 세례식은 1998년도 입학한 58기 육사생도들의 입교(入校)와 함께 열리는 것으로 신입생도를 비롯 재교생, 육사교회의 신우와 학생 그리고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세례식이다.

우리교회에서는 이번에 세례식 집계뿐 아니라 세례식에 앞서 가지는 세례자 교육, 예배진행과 친교·다과회도 돕게 된다.

제 13학기
서울성경대학
등록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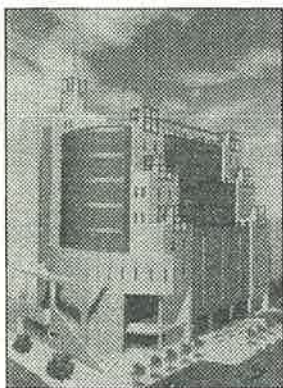
수강료는 과목당 오전 원이며 이번 학기 첫 수강자에 한하여 입학금은 오전원이다.
등록 문의는 사무국.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 교과과정표(3~6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사사기	월요일 오전 10시	김정현 목사	3월 30일
에스더	월요일 오후 8시	민영수 목사	3월 30일
히브리서	화요일 오전 6시	이순환 목사	3월 31일
빌립보서	화요일 오후 8시	박귀환 목사	3월 31일
요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2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이연숙 집사	4월 2일

새 예배당 소식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세부도면 수정작업 중



건축위원회는 4일(수) 예배당 건축설계를 맡은 (주)정림건축으로부터 예배당 건축과 관련 세부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건축위원회는 예배당 세부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지적했다. 예배당 설계는 이미 주요 골격은 완성된바 있으며 이날 회의는 새로 건축될 예배당 각 실의 배치 등 내부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세부설계는 앞으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벽한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세부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시공도면을 완성하도록 하고 이어 건설업자를 선정, 올해 안에 시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위원회 박철훈 장로는 “세부설계의 완성, 시공도면의 작성, 건설업자 선정 등의 과정이 잘 진행되어 올해 안에 새 예배당 기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은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며 “지금은 국가 경제가 가장 어려운 때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되어 눈물겨운 헌신으로써 새 예배당을 지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새 예배당건축은 물질로서가 아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임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순례자 컬럼 ✦

협조적 방해꾼

협조적 방해꾼이 있다. 가장 협조해야 할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지 않을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정면 도전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어 놓지도 못하고 주어진 일에 직무방기의 만행을 저지르는 우를 수없이 범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한 달란트 받은자로 비유 하셨다. 남보다 적다는 이유로 땅에 묻어둔채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자신과 주인을 속이는 자다. 적극적으로 협조적 동역자가 못되는 것이 협조적 방해꾼임을 또한 잊지말자.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다른 이와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랑의 법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여 나로 선한 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시고 방해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야

여인들이 당할 비참

3장 16절~4장 1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심판에는 여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롯, 에스더, 마리아와 같이 훌륭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무서운 죄가 구체적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죄는 교만과 사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죄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성이 부패하면 가정이 부패하게 되고, 가정이 부패하면 사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인들의 부패로 인하여 온 국가가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9절).

이스라엘 여인들의 안색에는 죄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 받은 얼굴이 찌그러지고 능욕 받은 얼굴이 그 증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15절).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16절)라고 먼저 말하며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진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만과 사치의 죄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16절).

목을 늘였다는 것은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정을 통하는 눈이란 망자한 행동, 남을 유혹하는 부정한 눈초리를 묘사한 것입니다. 또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려고 발바닥을 땅에 닿지 않고 걷는 것처럼 아기죽거리고 쇠줄을 달아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사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이란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구별된 백성들이 교만과 사치로 가득 차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약한 자를 억누른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심판의 내용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자지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 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하며 땅에 앉으리라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리라”(사3:16-4:1)

이중윤 목사



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겹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17-23절).

정수리에 딱지가 생겼으니 아름다운 장식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몸에 병이 생긴 것을 의미하니 아름다운 옷이나 값비싼 장신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질병입니다. 또 심판을 받게 되면 하체를 가릴 만한 옷도 없게 되는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육신은 병들고 재물은 사라지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던 각종 장식품을 제하신다고 했습니다(18-23절).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에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심판의 자

료로 가지고 계십니다.

3. 교만과 사치의 무상함

인간은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자지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 할 것이며”(24절).

천에는 향수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나며 아름다운 옷과 띠는 이제 슬픔의 상징인 노끈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25절).

남자가 없는 가정이나 사회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또하나의 슬픔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4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리라”(1절).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한 남자를 붙잡고 많은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경제적 책임을 질 테니 결혼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붙잡고 애원해야 할 대상은 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딸들은 교만의 죄를 짓고 사치와 열락에 빠진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민족 사회를 이끌어 갈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유년부성경학교에서

“모두 모여 믿음으로 새로와졌어요”

이선주 (유년부 교사)

유년부는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주제 아래 수련회를 가졌다. 기대치를 훨씬 넘는 수의 많은 학생과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참석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윤 교장선생님의 말씀으로 첫날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거듭난 삶에 대해 배웠고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은 아이들이 직접 성경이야기극을 꾸몄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세례요한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등 성경의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운동회 시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모두 참여해 운동회는 더욱 흥미진진했다.

이번 유년부성경학교는 특히 감사할 일이 많았다. 평소 주일예배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또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고등부수련회에서

마지막 수련회에서의 세가지 기억

한대석(고등부 3학년)

고 3인 나는 고등부 학생으로선 마지막이 될 겨울수련회에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났다. 예년과는 달리 수련회는 교회당 밖에서 열렸고 그래서인지 더욱 신선감이 들었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첫번째가 그룹성경공부(GBS / Group Bible Study)시간이었다. 평소 때는 성경을 공부하며 늘 그 깊은 내용에 몰입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았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성경공부시간엔 선생님께서 성경구절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며 토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두번째는 퀘이커 퀘스천(Quaker Question) 시간이었다. 함께 지내왔던 친구들의 고민과 꿈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조목 조목 기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하고픈 말 쓰기 시간이다. 수련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큰 종이를 벽에 붙이고 거기에서 하고싶은 말을 적는 것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 너무 좋았던 시간이다. 이

밖에 세워주기란 시간도 있었다. 칭찬보다 홍보는 게 쉽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남을 칭찬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것 같다.

“그 이름 높도다”

유동인(고등부 1학년)

내가 이번 수련회에서 구하고자 한 것은 교회 임원을 맡게 된 후로 교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학교생활과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떨어지는 성적과 부모님의 늘어가는 꾸중, 힘들어진 생활에 대한 해답이었다.

너무나 힘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절실했다. 그런데 수련회 첫날 부흥회 성경봉독 시간에 한 구절이 내 눈에 크게 들어왔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순간, 나는 어려웠던 문제의 해결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열심히 공부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나는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목적이 뚜렷해지니 공부를 할 때나 다른 여러 일을 할 때에도 집중하고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얻은 것이 있다. 그간 친구들과 불

■ 사랑부성경학교에서

못다한 시간 환한 웃음과 반김으로

손재영(사랑부 교사)

우리 사랑부는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맞는다. 다른 교회학교의 성경학교와는 달리 사랑부의 성경학교는 단 하루뿐이다. 그러나 주일이 아니면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었던 우리 사랑부의 작은 천사들에게 겨울성경학교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다.

주일에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예배와 식사시간만으로도 허락된 모든 시간이 지나버리고 만다. 때문에 사랑부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늘 아쉬웠다.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

사랑부 학생들은 재학원의 문밖을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일이면 자신들을 태우러 오는 교회 버스에 환한 웃음과 환호성을 지르는 열심있는 신앙인들이다. 주중에 열리는 성경학교는 이들에게 분명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인 셈이다.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생긴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성경학교 준비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환한 미소와 온몸으로 맞는 환영은 사랑부 교사들의 부족한 준비를 채우고도 남게 한다.

음성은 잘 안들릴지 몰라도 이들의 찬양에는 ‘기쁨’이 있고 몸짓이 분명치 않을지 몰라도 이들의 울동에는 ‘열심’이 있다. 많은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이들의 삶에는 ‘나눔’과 ‘감사’가 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부 교사들은 늘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겹으로 보기에 그리 온전치 못할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어떠한 모습도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 주셨다.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하는 동안 그간의 불화는 아무 이유없이 생겨났다는 것과 더 이상 오해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활 속에서 그분의 영광으로 그 이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 미가엘찬양대= 주일 저녁 4시 15분부터 4시 50분까지 '찬양의 시간'을 담당하는 미가엘찬양대 단원을 모집한다. 미가엘찬양대 연습은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302호실에서 하고 있다. -정동호 기자 -
- ◇ 유년부=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하고 시간에 맞춰 논현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어린이 전도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이선주 기자 -
- ◇ 청년부= 14일(토) 집회 후 강남역에서 노방전도를 한다. 주일 예배에는 출석하지만 아직 청년부 집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회원들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치는 기자 -
- ***교구 소식***
- ◇ 박영희 집사(4교구)는 반포동에 커피숍을 개업했다. ☎ 545-7774
- ◇ 이순덕 집사(3교구)는 삼성동 청구상가 지하층에 분식집 '다오리'를 개업했다. ☎ 517-0894
- ◇ 서창원 · 이기숙 집사(10교구)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아파트로 이사했다. ☎ 472-8999

선교회 · 전도회 제 1분기 전체 모임

우리교회에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연령별로 4개씩 구성되어 있다. 그중 모세선교회와 한나전도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6개 지회로 나뉘어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각 선교회 혹은 전도회의 전체모임을 분기별로 갖도록 했다. 그간 선교회나 전도회의 월례 모임이 지회별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에 있으면서도 다른 지회 회원들은 얼굴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전체 모임은 다른 지회 회원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고, 좀더 긴밀한 교제와 연합의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체모임은 제 1부 예배에 이어 제 2부 각 지회별 회원소개, 제 3부 선교회 발전방향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에 전체 모임은 갖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 ▶ 베드로(남성도 40~49세) / 14일(토) 오후 5시 2층 예배실(부부동반)
- ▶ 루디아(여성도 40~49세) / 12일(목) 오전 11시 2층 예배실
- ▶ 마리아(여성도 30~39세) / 10일(화) 오전 11시 2층 예배실

목회자동정

◆이종운 목사는 9일(월)에 출국하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세계로잔총회에 참석하고 토론토지역 연합집회 및 뉴욕 126기도모임을 인도하고 20일(금) 귀국할 예정이다.

오늘 점심식사는 박래원 집사 · 조봉환 권사 가정에서 제공

세례라는 형식이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일단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12월에 등록했다. 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새가족부에서 6주간의 교육이 우리는 대신해 그 몸의 물과 을 받으면서 '성례'라는 단원

순례길에서

**믿음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고자**

심은영(청년부)

피를 다 쏟으시면서 속죄하셨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은 세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직장관계로 자취생활을 하다보니 이사가 잦았고

특히 소속된 교회가 없는 나로서는 자연히 근처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97년 5월말 서울교회 근처로 옮기게 되면서 서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로 출석하면서 두 번의 성찬식을 접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 성경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세례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세례 혹은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두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 세례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

겠지만 일단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12월에 등록했다. 새가족부에서 6주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례'라는 단원에서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고 교재에 기록된 성경 여러 곳을 찾아 기록하면서 다시 묵상해 보게 되었다.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적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 잊으셨다는 확증으로 받는 것이며, 구원의 약속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살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알고 알은 지식이 전부인 양 자만하여 판단하고 우쭐댄 종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깨달음을 주신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종을 미련하고 우둔한 가운데 잠시도 버려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당신께 부르짖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2. 군선교와 비전2020운동을 위해
3. 사순절 기간 동안 참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